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육계발전 꾀한다



농가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임준철 지부장

지난 2월 4일 서천육계지부가 본회 이사회에서 지부로 승인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서천지부는 지난 1975년부터 양계인들 중심으로 모임체가 있었지만 단지 친목단체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양계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임준철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11월 5일 창립 총회를 갖은 바 있으며, 금년 1월 7일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지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회원들의 참여열기 후끈

서천은 서해안 지역으로 옛부터 어업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한산모시로 유명한 지역이다. 비록 축산업의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축산업중 양계업은 어느 산업 못지 않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 서천은 48농가가 양계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이중 종계업과 채란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육계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육계생산량 규모는 150만수로 연중 약 700만수가 생산되고 있으며, 48개 농가중 37개 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참여열기가 높다.

정기 월례회의가 있었던 지난 4일에도 일찍부터 사무실을 방문한 회원들이 양계정보는 물론 현안문제를 논의하기에 분주했다. 이날 때마침 지부가 창립되고 첫 번째 추진하는 미생물 사업과 관련하여 3개 농가에 한해 추첨을 통해 사료배합기를 보급하는 날이기도 했으며, 군청에서도 모임에 참석하여 축산업 등록제의 중요성과 친환경 사양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농가 권익에 앞장

지부를 이끌고 있는 임준철 지부장은 지자체 시대를 맞이하여 군(君)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양계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계열화를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부

를 결성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방역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계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부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서천군 전 양계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전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담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끌어 갈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회원들은 95% 이상의 회원들이 계열화에 참여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서 대신 공정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천지역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도계장들이 위치해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80일까지 늦어지는 대금결제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많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임지부장은 계열농가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관계를 동반자적인 관계



서천축협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백신공급을 위한 대형냉장고와 각종 약품들이 비치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로 끝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들이 연대하여 하나하나씩 바로잡아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양계연구회 결성 등 사업구상

사무실에는 이미 회원들에게 보급될 백신보관용 대형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 양계용 동물약품 샘플이 진열되어 있어 양계인들이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놓아 질병, 방역분야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서천축협 2층에 사무실과 함께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어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임지부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생균제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자동소독기 지급 사업, 양계연구회 결성을 통한 연구사업, 깔짚 지원사업 등 회원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이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 **양계**



지부를 이끌고 있는 임직원(좌부터 홍말순 서기, 한명희 부지부장, 임준철 지부장, 송창열 감사, 전문식 총무)